

다음 내용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봅시다. (파란색 글씨를 읽으며 인도하면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1. 오늘부터 가족예배가 있는 날까지 매일 저녁 가족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1) 온 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 2) 가족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 3) 가족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세요.

2. 이번 주간 가족예배 순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알려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족들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기도]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기도를 준비하도록 인도자가 이야기 해줍니다. 기도내용은 순서지를 따라도 좋고, 순서자가 스스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말씀]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자 순서지를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인도자가 맡아서 해도 좋습니다.)

가족예배 10분전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예배시간이 10분 남았음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시작 10분 전에는 찬송가 연주를 틀어놓고 예배 장소를 세팅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해요.]

가족예배 5분전

예배 장소 세팅이 끝났으면 성경책과 순서지를 준비하고 가족예배 장소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가족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도신경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가족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기도순서자가(아빠, 엄마, 동생, 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준비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내용 또는 기도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찬 송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음원 파일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말 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의 능력을 사용하라” [잠언 18장 20-21절]

20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신앙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며, 성도들, 이웃과도 아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에서는 아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심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벽기도에 나가 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집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나서 욕을 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루는 또 아들에게 화가 나서 욕을 퍼부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 진짜 네가 말 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줄까?”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집사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들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바뀌어야 해요. 이제부터 욕하지 않을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욕을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욕을 멈춘 어머니를 보고 아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둘째 딸이 다급하게 달려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지금 오빠가 공부를 해요!” 그렇게 바뀌게 해달라고 할 때는 안 바뀌었는데 아들을 향한 욕을 멈추고 말을 바꾸자 아이가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말하는 대로 되곤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성공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면 될 일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도 말의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말의 능력을 알고, 올바르게 입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 함부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을 정도로 말에 힘이 있다고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우스운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은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정신승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에 힘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바뀐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민수기 14:28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의 믿음이 없는 말을 들으셨고, 그들의 말대로 보응하셨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을 들으셨고, 그들의 말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인물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삼상 17:46)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한 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에 빠져서 빈번하게 자신의 한계점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마저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 될 거야, 불가능해.” 라는 말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현실주의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제한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선포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스스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족 신앙스토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1. 최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만한 말을 한 적이 있나요? 함부로 말을 했던 것,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이 있다면 반성하며 어떻게 고쳐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2. 오늘 나눈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해야할 믿음의 말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족미션

매일 가족들에게 믿음의 말해주기.